

# 허균의 문학비평활동의 특징

김 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적으로 문학은 평론에 의하여 총화되고 평가되여왔다. 인류문학사에 올라있는 훌륭한 작품가운데는 평론가의 옳은 평가에 의하여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것도 적지 않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42페이지)

국문소설 《홍길동전》을 창작한 허균(1569—1618)은 진보적인 문학비평활동을 벌린 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문예비평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겨놓았다.

허균은 문학발전에서 비평이 차지하는 역할과 의의를 비교적 옳게 인식한데 기초하여 진보적인 문예비평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반동적이며 보수적인 문학창작경향을 반대하고 애국적이며 민족적인 문학을 창작할데 대한 진보적인 미학적견해를 내놓았다.

허균의 문학비평활동정형과 관련된 자료는 그의 시화집인 《성수시화》와 《학산초담》 그리고 《답리생서》, 《사한전방서》, 《시판》, 《문설》, 《명나라사가시선서》 등 여러곳에서 찾아볼수 있다.

허균의 문학비평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당시 다른 나라 문인들과 작품을 기준으로 시의 품격과 우열을 논하던 사대주의적경향을 배격하고 민족적자존심에 기초하여 비평활동을 전개한것이다.

당시 량반문인들속에서는 시를 하나 창작하거나 평가하여도 당나라나 송나라와 같은 중국의 옛 시들을 기준으로 하는 사대주의적인 풍조가 없어지지 않고있었다. 특히 조선봉건왕조시기 명나라에 대한 극단한 사대로 하여 창작에서 사대주의적인 풍조는 여전히 고질적인 폐단으로 남아있었다.

허균은 당시의 이러한 문학비평실태를 비판적으로 대하면서 다른 나라 문인들과 작품들을 높이 추어올리며 그에 기준하여 문학창작과 작품을 논할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배출한 문인들의 공적과 작품의 문학사적의의를 응당하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허균은 《답리생서》(리생에게 대답하는 글)에서 《우리 동방의 나라를 어찌 낮추어서 논할수 있겠는가! …을지문덕의 시와 같은것들이 력사가들의 기록에 실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가 바로 을지문덕의 손에 의하여 씌여졌다는 사실을 감히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 《적장 우중문에게》와 같은 명시와 그것을 남긴 을지문덕과 같은 사람이 알려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당시의 사대주의자들의 관점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허균은 계속하여 신라의 최치원이후에 시로 이름을 떨친 시인들의 이름을 꼽아가면서 그들의 시가 해당 시대에 자기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놓았다고 하였으며 중국의 이름있다는 시들과 기교의 우열을 겨루어볼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허균의 문학비평은 우리 민족이 배출한 문인재사들이 결코 중국에 못지 않다는 민족적자존심으로 일관되여있다.

일부 사대부들속에서 《우리 나라 녀인들가운데 시에 능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술상, 밥상을 차리는데만 관심을 돌린다.》라는 말이 돌고있을 때 허균은 《이러한 논의는 부당하게 나라밖에서 시작품의 문채를 구하려는자들이 하는 소리》라고 하면서 그들의 민족

허무주의와 사대주의적관점을 반대하여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나라에서는 가까운 년간에만 하여도 매우 많은 녀류시인들이 나타났다. 나의 누이 허란설현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은 재능을 가지고있으며 리옥봉도 역시 큰 시인이라는것은 론할바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신순일의 안해 리씨, 양부사의 첩, 정상공의 첩, 권봉의 녀종 등 유명무명의 녀인들의 시작품들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시적재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다른 나라의 문인들과 작품들에 대한 우상화에 빠져 자기 민족의 문학적공적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당시 량반사대부문인들의 그릇된 처사는 허균의 민족적자존심을 심히 자극하였던것이다.

하기에 허균은 리달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쓴 시는 《비록 옛 시형식이기는 하나 사실을 보고 그대로 진실하게 노래하였을뿐》이라고 하면서 당나라 시를 모방하는것은 《남의 집 처마밑에 집을 짓는것과 같은것이니 누구의 시와 비슷하다는 평가보다 허균의 시는 되는데로 막쓴것이다.》라는 평가를 받는것이 더 낫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창작에서 모방과 도식을 반대하고 작가마다 자기가 사는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며 자기 고유의 창작적개성을 살릴데 대한 미학적전해를 지니고있었다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허균은 시뿐아니라 산문도 우리 사람들이 쓴것이 매우 우수하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의 김계온, 남지정, 김충암, 로소재 등이 쓴 산문은 중국의 이름있다는 사람들이 쓴 글에 못지 않은데 《아쉬운것은 우리 나라의 이 문인들이 중국땅에 가서 그곳 문인들과 함께 소매를 걷어올리고 글짓기를 하여보지 못한것이》라고 하였다.

허균의 이러한 주장에는 문학비평에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평을 자기 나라 문학발전력사속에서 분석하여야 한다는 진보적인 견해가 담겨져있다.

허균은 이밖에도 최치원, 정지상, 리인로, 김극기, 리첨, 조운홀, 리행, 리달, 최원정, 로수신, 최경창, 백광훈, 리실지, 정철, 리안눌, 림제, 리원, 류희경, 한석봉, 양사언, 사명당 등 우리 민족이 배출한 매우 많은 문인들의 작품들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그들의 고유한 시풍과 작가적개성, 창작의 우수성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허균은 많은 문인들가운데서 천한 신분의 문인들을 적극 내세웠다. 그는 《최경창의 시는 씩씩하고 굳세여보이며 백광훈의 시는 마르고 담박해보이는데 다 근체시의 시풍을 잃지 않아 역시 천년이래의 희귀한 곡조라고 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서자출신문인들이 쓴 시에 대하여 절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량경우(임진조국전쟁시기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희생된 량대박의 아들)가 시인중에서 《누가 제일 잘 쓰는 시인인가?》라고 물었을 때 《어무적의 〈류민탄〉과 리달의 〈만랑무가〉가 우수하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기이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대들속에서 많이 나온다고 할수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허균의 문학비평이 문인들의 출신성분을 놓고 편견적으로 진행된것이 아니라 매우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그가 서자들을 비롯한 천한 신분의 사람들의 재능도 포함하여 민족의 우수성을 립증하려고 하였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허균의 문학비평의 특징은 다음으로 창작에서 형식보다도 내용을 중시하고 뜻을 우선시하여야 한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전개된것이다.

평론은 문학의 새로운 형상분야를 탐구하고 작품창작과정을 바로잡아주는 문학발전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따라서 평론이 없이는 문학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비평의 중요성에 대하여 비교적 옳은 리해를 가지고있었던 허균은 자기의 문학비평

을 작품창작에서 견지하여야 할 방법론과 창작의 본도를 밝히는데로 지향시키였다.

허균은 이 시기 문인들속에서 내용은 관계없이 형식에만 치우치던 형식주의적인 창작경향을 비판하고 창작에서 내용이 선차적의의를 가지며 내용을 잘 알수 있도록 글을 써야 한다는 진보적인 견해를 제기하였다.

작품창작에서 형식미만 추구하는 경향에 대하여 허균은 《문설》에서 《힘한 말과 교묘한 말로써 글귀를 꾸미고 낚기 시작하였으며 서로 기교를 다투게 되었다.》라고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창작에서 형식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비판은 허균이 《허형자하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그는 이 편지에서 리안눌의 시를 평가하면서 《리안눌이 기이한 기교에만 류의하니 비록 아무리 힘을 많이 쓰고 마음을 썩인다 하여도 결국 시의 풍격은 더욱 빈약해지고 흥취도 떨어지며 시상도 원숙한것 같으나 점점 떨어지고만다.》라고 하였다.

허균은 당시 량반문인들속에서 나타나고있던 형식주의적인 창작경향을 정당하게 지적하면서 창작에서는 내용이 선차이며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글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던것이다.

내용의 우위성을 강조한 허균의 견해는 《송나라 오가시초서》에서 찾아볼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시는 송나라에 이르러 망했다고 할만하다. 시문학이 망했다고 하는것은 시어가 망했다는것이 아니라 시를 쓰는 리치, 방법이 망했다는것을 말한다. 시의 리치는 노래하려는것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표현해나가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시를 읊고나면 그 여운이 계속 울리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 있는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의 본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마디나 미끈하게 하면서 글자를 맞춘것을 제일 잘된것이라고 여긴다.》라고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우에서 지적인 내용을 분석해보면 허균은 시창작에서 언어를 화려하게 꾸미고 글자를 맞추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뜻을 심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작품창작에서 뜻을 심는것이 중요하며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뜻은 하나를 통하여 많은것을 련상시킬수 있게 깊고 고상하여야 하며 그런 시만이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것이다.

허균의 이러한 견해는 《성수시화》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그는 최경창의 시창작태도에 대하여 《고죽의 시는 작품마다 다 우수하다. 그것은 그들이 작품을 다듬어나갈 때마다 반드시 말하고자 하는 뜻에 부족점이 없게 한 다음에 완성하였기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작품창작에서는 뜻을 위주로 하고 그것을 잘 살려야 한다는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문설》에서도 옛 글을 평가하면서 《글이 명백하고 바르며 순박하고 친절하여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똑똑히 알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글의 용도이다.》라고 하면서 작품창작에서 내용을 중시하고 그것을 잘 알수 있도록 글을 써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창작에서 내용을 중시하고 그것을 잘 알수 있도록 글을 써야 한다고 한 허균의 견해는 작품창작에서 내용과 형식과의 호상관계를 정당하게 리해한데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그의 진보적인 미학적견해를 잘 보여주고있다.

허균의 문학비평의 특징은 다음으로 작가의 현실체험의 중요성에 대한 옳은 리해에 기초하여 전개된것이다.

문학과 현실간의 관계를 옳게 밝히는것은 문학창작에서 필수적인 문제로 나서며 현실을 어떻게 감수하고 반영하는가에 따라 작품의 사상예술성과 생명력이 규제되게 된다. 문학은 어디까지나 작가의 체험의 산물이라고 말할수 있다.

허균은 《성수시화》에서 리산해와 고경명의 시들은 류배살이를 하면서부터 극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로보건대 문학이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험난한 길을 걸으며 현실을 깊이 체험한 후에야 묘한 경지에 들어설수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어찌 이 두 시인들뿐만이 그렇다고 말하겠는가. 옛 시인들도 다 그러하였다.》라고 밝히고있다.

허균은 우수한 문학작품을 창작하자면 현실에 뛰어들어 풍부한 체험을 쌓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생활체험중에서도 하층생활에 대한 체험이 매우 중요한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그가 참다운 인간들의 세계가 봉건사대부들의 한가로운 생활속에 있는것이 아니라 근로인민들속에 있으며 바로 이 고상한 세계를 진심으로 느끼고 형상적으로 반영하여야 훌륭한 문학작품이 나올수 있다는 옳은 견해를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앞에서 허균이 어무적, 리달, 백광훈, 최경창, 류희경 등 천민들과 서자출신의 시인들을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것도 그들이 신분적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한 인간생활을 체험한 결과라고 보았기때문이다.

허균의 문학비평에서 무시할수 없는것은 비록 단편적인 자료이지만 국문문학의 우수성에 대하여 긍정하고있는것이다.

정철의 《사미인곡》과 《권주사》에 대하여 《사악한것》이라고 혹평하는데 대하여 허균은 《〈사미인곡〉과 〈권주사〉는 다같이 맑고 장대하여 가히 들을만하다. …그 문체와 풍격은 역시 덮어버릴수 없는 범상치 않은것이니 아껴야 할 글이라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글로 지은 문학작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것은 정철에 대한 공감이면서도 국문문학의 우수성을 인정한것으로 된다.

허균의 문학비평활동은 총적으로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전개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로부터 그는 사대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문풍이 만연하던 보수문단의 현실을 심각하게 비판하고 자기 민족의 작가와 작품들을 적극 내세웠으며 작품창작에서 형식보다도 내용을 중시하고 언문(상스러운 말)이라고 천시하던 국문문학의 생활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던것이다.

모든 문학가들은 지난 시기 우리 민족이 창조한 문학유산과 문예리론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민족문학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보물고를 풍부히 해나가야 할것이다.